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 포커스그룹 인터뷰*

최진숙
(영산대학교)

Choi, Jin-Sook, 2007. Focus group interview for the parents of the students who have returned to Korea after early English learning in foreign countri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5(2), 77-98. Early English learning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is currently booming in South Korea. However, it has not been clear that early English learning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is effective and fruitful.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whether or not early English learning in foreign countries can cause some problems.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ix parents who sent their children to English speaking countries for improving their children's English skills.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used to obtain insights about the addressed issues through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dure. The overall results on this qualitative survey revealed that early English learning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could bring about some negative effects on learning; children's linguistic identity would be weakened and there might be barriers to their academic progress. This paper indicates that early English learning in English speaking countries is inefficient in terms of the improvement of children's English, thus parents should consider many aspects when they have in mind they send their children abroad to learn English, suggesting that learning English in those countries be done at a college level.

Key words: Early English learning, group interview, linguistic identity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익명의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comment를 받았으며 감사드린다.

이제 조기유학은 하나의 열풍을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이 20,400명으로 1998학년도 1,562명보다 13배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이 급증(1998학년도 212명에서 2005학년도 8,148명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이는 부모님의 해외파견이나 해외이주를 제외한 공식적으로 출국한 학생들에 대한 공식 집계이지만 다른 명목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례까지 합치면 실질적 유학생은 더욱 많을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유학경비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유학생과 조기유학생이 해외에서 쓴 돈은 98년 8억2970만 달러, 2000년 9억5790만 달러, 2001년 10억7000만 달러, 2002년 14억2660만 달러, 2003년 18억3990만 달러, 2004년, 24억8000만 달러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동반가족을 포함하면 2005년에는 100억 달러(약 1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교육수지 적자 또한 사상 최대(21.8억불/한국은행)를 기록하고 있다(정희정, 2005).

그렇다면 이러한 막대한 유학경비를 지출하고 보내는 조기유학이 과연 모든 조기유학생들에게 성공의 열쇠로 작용하는가? 현재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상황이나 조기유학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폐해들을 본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영어권나라에서 가장 큰 수입을 올려주고 있는 교육시장의 주 고객이 바로 한국의 조기유학생이다. 그만큼 많은 한국학생들이 영어권나라로 몰려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무분별하게 조기유학을 가고 있는지 그 예를 들어보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학원의 수강생은 모두가 한국의 초등학생들이다.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어린나이에 유학을 온 학생이 없기 때문이다. 영어를 배우고 외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간 조기유학이 같은 한국학생들끼리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몰려다니다가 귀국하는데 과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조기유학을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하는 이유가 교육의 비효율성과 비용낭비 때문만이 아니다. 조기유학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폐해는 더 이상의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조기유학으로 발생하는 ‘기러기야빠’의 문제는 아버지들의 자살, 부부간의 신뢰파괴, 가정경제 붕괴 등으로 이제 곳곳에서 끓아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 홀로 남은 ‘기러기야빠’는 자식의 장래를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감수한다. 존재를 확인하고 보호받으며 희망을 키워나가는 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이란 신성한 의미는 조기유학이란 이상한 열기로 인해 저당 잡힌 꼴이 되고 있다. 조기유학열풍으로 인한 한국내의 빈부격차에 따른 소외감도 또 다른 사회문제

로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란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상류층의 조기유학 풍조에 따른 빈부격차의 박탈감과 서민들의 소외감 등이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조기유학과 관련된 연구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조기유학은 어린학생들의 언어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삶의 지침대가 없이 부유하는 것과 같다. 언어는 사고를 확립시키는 메커니즘(mechanism)이다. 언어를 통해 형성된 사고는 감정을 가진 자아를 형성한다. 그런데 어린나이에 감정과 언어가 일치하지 않아, 늘 불안하다. 행복해야 할 권리를 박탈당해버리는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어를 통해 감정과의 일치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다. 아직 언어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다른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만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한국어의 정체성을 가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정체성을 가지게 할 것인가를 한국사회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사회현상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조기 유학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선행연구에 대해 조사 분석해보고, 초등단계에 영어조기유학을 보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의 사례들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기유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나아가 그룹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들을 거둘 수 있었는지 검토해보고, 조기유학이 학습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언제 유학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학부모 계도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주는 것 또한 이 연구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국어는 학문 및 언어소통, 문화교류를 위한 도구이고 유학은 더 많은 지식과 문물을 익히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써 잘 배우고 선택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조기유학’의 선택으로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면 이는 적극적인 홍보로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기유학의 폐해, 이제 목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더 이상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조기유학을 제재시키고 건전한 유학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믿고 있다.

2. 영어조기유학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2.1. 영어조기유학의 정의

일반적으로 ‘조기유학’이라 하면 어린 학생들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수학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초·중등 단계의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입학, 혹은 재학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 현지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는 행위”(김영희 외, 2006)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이주나 부모님의 직업 또는 유학에 의해 어린나이에 해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의 ‘영어조기유학’이란 초등단계에 있는 학생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출국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정식교육기관인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4-6년 동안 수학을 한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런 영어권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수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학생들의 유학이라고 이 논문은 한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초등단계에 있는 학생이 영어권나라로 유학을 떠나 초등단계 또는 중등단계를 영어권 나라에서 수학한 후 귀국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2. 영어조기유학 목적에 대한 검토

우선 영어조기유학의 목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학부모마다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로 집약되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여 적응력을 키우고 따라서 성격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견문을 일찍 깨닫는 데 있을 것이다. 셋째, 조기유학은 일찍부터 영어권 현지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없애고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진학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기유학이 하나의 교육기회일 수 있으며, 영어권학교교육이 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이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특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안병철, 1996). 실제로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모들은 모두 조기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고 믿고 있다. 15세 (중2)에 호주를 1년 반 동안 조기 유학한 학생의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견문이 넓어지고 자립심이 생겨 적극적인 성격이 되었다”(최창봉, 2006, p.16)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유학전문가는 “조기유학은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

조기 접목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적응력을 키우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인교준 & 이귀원, 2006) 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도 객관적 자료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이 5047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하위 50%라고 답한 학부모들은 유학 전 4.3%인 반면, 귀국 후 14.7%로 증가했다. 학업성취도는 유학전의 환경, 또는 새로운 학습 현장으로의 적응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적응력도 잃고 있는 결과를 보면, 조기유학이 적응력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캐나다에 온 조기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안병철, 1996)에 의하면, 조기유학의 부정적인 면을 저하된 수학능력, 비용낭비, 그리고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문제로 지적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여 보다 일찍 자녀들에게 세계관을 넓혀주자는 이 유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일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여 ‘사랑의 매’를 댔더니 법정까지 불려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인교준 & 이귀원, 2006). 이런 문화적 차이는 적응력을 키우기보다는 ‘문화충격’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종합적 인성교육을 우선시하는데 입시위주의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다. ‘공부’보다는 ‘사회성’이 강조되는 외국에서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즉, 적응력을 키우기 전, 새로운 문화에 적응조차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기유학으로 인해 적응력과 세계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국제사회에 적응력을 키우는 것은 꼭 조기유학이 아니더라도 여행 및 국제교류 등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조기유학은 국내의 공교육에서 배우는 영어가 만족스럽지 않고,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으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어학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가 뒤따르고 있다. 어학이란 노출도(exposure degree)가 중요한 요소인데(최진숙, 2001), 조기유학 후 귀국하게 되면 영어로의 노출이 적어진 상태에서 어학실력은 감소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영어 노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유학 전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영어에

할애해야 한다. 한국의 언어 환경은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즉, 조기유학으로 가져온 영어실력이 효율적이 되려면 영어에 투자하는 사교육비는 더 늘어 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조기유학을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어도 그 정도의 투자면 영어능력 향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대부분의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은 영어실력 향상과 건문이 넓어지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격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 85%가 조기유학을 간다면 말리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조기유학생들의 설문지조사에서 52.2%가 조기유학을 “권유할 생각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유학생 10명중 6명이 유학생 생활에서 ‘보통’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조기유학이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며 이런 환경에서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되고 건문이 넓어질 수 있는지 의심해 볼 시점이다.

2.3. 영어조기유학과 언어정체성

조기유학은 단순히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어린나이에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정체성이란 언어를 통해 사고를 형성하게 되며, 자신의 몸체가 외부와 접촉하여 받아들여진 감정만큼 언어는 발달하는 것이다. 즉 언어와 인간의 몸체는 하나가 됨으로써 올바른 사고를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나이에 언어와 인간의 몸체, 즉 감정이 일치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온다면 한 인간의 정체성은 흔들리는 것이다. 인간이 행복해야 할 권리를 대가없이 박탈당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이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그 그룹(group), 나아가 그 국가(nation)는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 된다(Fishman, 1972). 따라서 어린학생들에게 언어정체성을 똑바로 세워주는 일은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유럽의 Catalonia의 경우 주위의 강대국들 속에서 거의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던 언어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강한 ‘모국어우선’ 정책 때문이었다(최진숙, 2004). Catalonia정부는 14세까지 모국어능력을 확인하는 인증서 시험을 쳐서 통과하도록 했다. 그들의 Catalan 언어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자부심은 물론 Catalonia를 더욱 단단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기유학열풍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인식으로 스며든 모국어 경시현상과 희석되어

저가는 언어정체성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발견되고 있다(최진숙, 2004)¹⁾.

2.4. 영어조기유학의 비효율성

표1. 조기유학비용(1년)

국가	학교	학비
미국	사립기숙학교	US\$2만5000-3만5000
캐나다	공립학교	C\$1만2000-1만5000
영국	사립기숙학교	£ 9000-1만8000
호주	공립학교	A\$8000-1만3000
뉴질랜드	공립학교	N\$9600-1만2000(대도시)

(출처: 최창봉, 2006, p.16)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조기영어유학을 보내는 이유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가장 지배적일 것이다. 그러나 표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조기유학 비용은 중산층에서조차 부담스러워할 금액이다. 그러나 그 비용만큼의 효과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아래의 열거하는 몇 사례연구에서 보듯이 조기영어 유학은 별로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우선 영어학습에서 언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능력향상은 깊은 관계가 있다. Gardner (1985)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단기(short term) 프로그램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다가 장기(long term)으로 가게 되면 호감도는 떨어지고 중립적이 된다는 것이다. 즉, 조기유학으로 처음에 가지는 높은 호감도는 영어능력을 높이는 것처럼 보여도 일정 기간 후에 호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 특히 모국어능력이 부족한 어린학생들에게는 외국어 습득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Cummins와 Swain(1986)의 연구에서 어린 학생들의 외국어 습득은 모국어 능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모국어의 유창성(fluency)이 낮으면 다른 언어의 유창

1) 초등학생의 언어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5년 뒤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 후 비교해 본 결과, 국어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는 약해졌고, 국어보다 영어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보고했으며 영어문화에 점점 익숙해져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fluency)도 현저히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Common Underlying Proficiency Model’(Baker, 1993)이다. 즉, 수면위에서 보면 두 언어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밑에는 두 언어가 같은 중앙처리시스템에 의해 운용된다고 한다. 모국어는 생각을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기본 도구, 즉 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국어실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각과 음성의 사이를 더 떨어지게 하고 결국 표현과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모국어가 충분히 습득되지 않은 어린나이에 유학을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조기유학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은 Cooper와 Fishman(Cooper, 1984)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영어의 유창성(fluency)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영어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고학년일수록 영어의 유창성이 더 높게 나왔다(Cooper, 1984). 즉 인식이 더 발달한, 그래서 영어가 현실에서 필요하다고 더 강하게 느낀 고등학생들이 좋은 영어 학습 결과를 보여준 반면, 영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서는 낮은 영어학습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실험에서 언어능력은 필요성의 인식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 결과들은 외국어 및 제2언어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고학년에서의 영어습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너무 어린나이에는 아직 필요하다는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같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면 효율성이 높은 시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자의 현장관찰(field observation)에 의하면 유학은 모국어 습득이 끝나가고 정체성이 확립된 18세 이후(대학1년)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유학 온 대학생들의 영어실력을 보고 알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3.1. 포커스그룹인터뷰

이 연구를 위해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포커스그룹인터뷰가 연구방법으로 선택되었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택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논문은 자녀들의 개인적인 일에 관한 것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양적조사가 이루어 졌을 때 쉽게 내면의 생각들을 표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질적 연구방법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로써 양적연

구(예; 설문지조사)에서 얻기 힘든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적 방법보다 훨씬 질 높은 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질적 접근에서는 ‘진실한 생각’을 참가자들은 보여줄 수 있으며, 토론을 하다보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체인(chain)식으로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가 있다. 즉, 그룹인터뷰의 주요 목적은 그룹 참가자들의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아이디어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Hawtin et al., 1994). 주어진 주제에 대해 그룹 참가자들의 내면을 보려면, 토론을 이끌어가는 연구자의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그룹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는 그룹인터뷰관련 문헌(예; Berdie et al., 1986; De Vaus, 1995)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자는 자유로운 그룹토론에서만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끌어낼 수 있었다.

3.2. 연구대상

순수하게 자녀들의 조기유학만을 목적으로 자녀와 함께 동반하여 해외에 다녀온 부모들을 이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자녀들은 최소한 2년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고, 최근 5년 내에 귀국하였다.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로 자녀가 함께 동반하여 영어권국가에서 유학을 한 경우는 제외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가능하면 조기유학한 나라들이 다른 자녀들의 학부모들을 접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래와 같다.

표 2. 참석자들

참석자	현재자녀의 나이	조기유학 시기 및 기간	체류 국
A(52세)	19	초등4-중3 (6년)	호주
B(47세)	17	초등2-6 (4년)	호주
C(43세)	16	초등3-중1 (5년)	호주
D(46세)	17	초등2-6(4년)	미국
E(47세)	17	초등6-중3(4년)	미국
F(50세)	18	초등1-초등5(5년)	뉴질랜드

3.3. 그룹인터뷰설문지

인터뷰 질문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어 내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져야만 했다. 인터뷰 설문지의 각 질문 내용은 이론적 배경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질문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설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Hawtin et, al., 1994; De Vaus, 1995)이 검토되었다. 그런 후, 프리테스트(pretest)를 위해 그룹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이메일로 보내 먼저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받았다. 답변들을 모두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1. 다른 의미의 질문 (different meaning): 질문내용에 오해가 될 경우, 즉 질문한 사람의 질문 의미와 대답하는 사람이 받아들인 질문의 의미가 다를 경우, 2.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unanswerable question):(예, 조기유학 전 학교성적 등), 3.묵시적인 대답(acquiescent answers):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기 원하는지요?”라는 질문에 사실 내면은 받기를 원할 수 있으나, 외부시각을 인식하여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기 곤란한 경우, 4. 비슷한 질문(Redundancy): 질문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던 경우, 5. 기타, 즉, 질문순서 (민감한 질문은 뒤쪽에)라든가 부적절한 또는 불확실한 질문 등은 사전조사(pilot survey)를 거쳐 제거되거나 수정되었다.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질문들은 아래와 같은 큰 맥락을 기본으로 두고 만들어졌다. 1. 조기유학의 목적(성격변화, 문화체험, 영어능력 향상 등)을 이루었는지, 2. 조기유학이 학습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3. 언어정체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4. 조기유학이 정말 효율적이었는지 등이다. 설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자녀의 현재 나이와 학년, 학교, 이름; 2. 조기유학으로 자녀가 얼마동안, 언제, 어느 나라에 체류하였습니까?; 3. 왜 조기유학을 보내게 되었는지 말해주십시오; 4. 외국학교에서 자녀가 처음 적응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5. 외국학교에서의 자녀의 학교성적 또는 학습능력은?; 6. 외국학생들이 자녀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했습니까? 같이 잘 어울리고 서로 충분한 교류를 가졌는지요?; 7.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학교와 국내학교의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까?; 8. 외국에 있으면서 자녀가 받은 문화충격이 있다면?; 9. 한국학교와 비교해 외국학교의 좋은 점이 있다면?; 10. 귀국하게 된 이유는?; 11. 귀국 후 자녀의 성격은 출국 전의 성격과 많이 바뀌었습니까? 12. 귀국 후, 유학전의 학교성적과 달라졌나요?; 13. 부모님이 느끼기에 귀국 후 자녀의 영어실력이

많이 향상 되었다고 느끼나요?; 14. 영어국가에서의 문화체험이 국내에 돌아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요?; 15. 현재 자녀의 모국어(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16. 현재 자녀의 국어실력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17. 귀국 후, 자녀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할 때 영어를 섞어 쓰는지요?; 18. 귀국 후, 영어학원등 영어사교육을 받고 있는지; 19. 현재 학교에서 영어 과목 성적은 어떻습니까?; 20. 조기유학 후 국내에서의 입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1. 또 기회가 온다면 자녀를 조기유학 시킬 의향이 있나요?; 22. 조기유학경험자의 부모로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23. 부모님의 생각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조기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 (또는 유익하다고) 생각하나요?;

3.4. 연구절차

이미 언급했듯이,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심도 있는 질문으로 내면의 생각들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들이 느끼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현장연구방법으로 택했다. 그룹인터뷰에 참가할 대상을 선정하기 전에 선행 연구 및 보도자료 내용을 분석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조기유학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에 대한 보도자료들을 충분히 읽고 검토 한 후, 연구자가 유학당시 만났던 조기유학을 왔던 부모들에게 먼저 연락했다. 이어 연락된 부모들에게 주변에 조기유학을 보낸 부모들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의 부모들과 섭외가 이루어지면, 연구자는 전화를 걸어 그룹인터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여를 부탁했다. 나아가 오디오 카세트에 녹음 할 것을 사전에 허락 받았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마련한 편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중요한 내용들은 그룹 토론 중에 연구자가 노트에 쓰기도 했지만, 보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오디오 테이프에 녹음을 했고, 인터뷰가 끝난 후 오디오를 다시 들으며 재정리를 했다.

4. 그룹인터뷰 결과 및 분석

4.1. 외국학교에서의 생활

학부모 심화그룹인터뷰에서 제일먼저 질문한 것은 바로 조기유학을 보내게 된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6명중 5명의 어머니들은 주저 없이 영어실력

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래서 영어실력이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기 유학을 결정했다고 답하였다. 이는 조기유학을 보내는 부모들의 보편적인 목적임을 감안한다면 특별한 답변이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에서 영어학원은 무조건 보내야하니 차라리 기존의 사교육비에서 조금 더 지출을 해 조기유학을 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참여자는 “비용을 단순히 학원 보내는 사교육비에 기준을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며 조기유학으로 인해 들어간 비용은 중산층에게조차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했다. 즉, 외국학교의 수업료는 학원에 보내는 비용을 대신한다지만 수업료 외에 거주비(의식주 외 차량, 보험 등)는 수업료보다 더 큰 지출이었으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에게 영어, 수학 등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은 이중, 삼중으로 늘어났었다고 한 어머니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룹인터뷰에서 귀담아 들어야 했던 내용은 조기유학을 보낸 또 다른 이유다. 대부분 참가자들 (5명)의 자녀들은 비록 저학년 때의 학습결과였지만 한국에서의 학교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 인터뷰 참여자는 자신의 자녀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 자녀의 성적이 만약 상위권이었던다면 조기유학을 굳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자녀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예측한대로 언어문제였다. 영어를 어느 정도 미리 공부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우선 선생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같은 학급의 친구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영어로 표현을 못해 참아야만 했고 과제물 및 지시사항등도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입학하면 처음에 학교가기를 꺼리는 학생들도 있었고, 3명의 인터뷰 참여자 자녀들은 아예 학교에 가기 싫어 울기까지 했다고 한다. 한 부모는 “학교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볼 때마다 조기유학을 왜왔냐”하고 후회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돌아갈 수도 없었다고 한다.

외국학교에서의 자녀들 학습능력은 처음에는 당연히 바닥이었다고 한다. 우선 영어를 잘 알아들지 못하니 시험지를 제대로 써낼 수 없었다. 영어는 아시아계에서 유학 왔거나 이민 온 학생들이 방과 후 듣는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별도 반에서 영어특별수업을 받았다. 초등학생의 연령이면 6개월 정도 학교수업을 받은 후 기초적인 대화는 무난히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간단한 문장정도는 큰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나이가 어릴수록 더 빨리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확실

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2학년과 6학년을 조기유학 시킨 한 참여자의 말에 의하면 2학년 학생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빨랐으며 반대로 6학년 학생은, 특히 말하기(speaking skills)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 상대적으로 창피함을 덜 느끼고 흉내도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언어습득은, 특히 말하기(speaking)능력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참여자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쓰기(writing)능력은 어휘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고학년일수록 더 뛰어났다고 부언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 수학과목에 대한 것이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선행학습이 드물고 진도가 많이 늦기 때문에 이미 선행을 하고 간 조기유학생들이 기초적인 영어능력을 가지게 되면 수학은 오히려 현지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좋다고 한다. 한 참여자는 “그 나라 학생들은 계산이 무척 느리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한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한 문제를 풀 때 마다 답이 무엇이나 보다는 어떻게 풀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 졌다”며 빠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문제를 주면 가장 먼저 푼다고 말했다. 이렇듯 수학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과목에서는 자연히 뒤질 수밖에 없었고 수업진도를 따라가는데 많은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참여자중 오직 한 부모만이 어릴 때부터 언어능력이 남다르다고 느낀 그녀의 자녀가 조기유학 2년 만에 그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는 등 상위권에 진입했다고 말해주었다.

조기유학을 간 자녀들이 대부분 어려서인지 외국학생들의 대한 느낌은 대체로 좋았다고 대답했다. 서양학생들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으며 외국친구들도 조기유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했고, 즐겁게 집에도 초대했으며 sleep-over (친구 집에서 자는 것) 또한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생일파티를 자주 했는데 그럴 때 마다 새로 온 동양친구들을 초대했다. 그것은 어린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동양인에 대한 호기심으로 보여 졌는데, 문제는 그 호기심과 관심이 초등학교 5학년 말 또는 6학년정도가 되면 없어진다는 것이다. 고학년이 되면 오히려 서양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과 다른 피부색 때문에 심지어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Lambert와 Kineberg (1967, p. 217)의 이론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만 10세에 가장 외국인을 호의적으로 보기 쉽다고 한다. 그 이후로 호감도는 점점 떨어져 14세가 되면 이미 특정한 고정관념(stereotype)이 생기고 외국인을 볼 때 선입견이나 자신의 성격이나 습관에 따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의

대부분은 저학년일 때 외국인 친구를 사귀지만 고학년이 되면 한국인 학생들끼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외국에 있으면서 외국학교와 국내학교의 다른 점을 많이 발견했는지 진행자가 물어보았을 때, 참여자 모두 “많이 다르다”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그들은 교육환경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학교는 넓은 운동장과 자연이 함께 있어 넉넉함을 주고 있었고, 수업시간은 주로 발표가 많았다고 한다. 학생 수가 적다보니 학생들 한명 한명에게 선생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학부모들에게 학생들과 관련된 통신문을 보냈다고 한다. 특히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은 방과 후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그곳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축구 등 운동을 하면서 또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에 있는 케어 센터(care center)에서 보낸다고 한다. 주말은 주로 가족들과 바닷가나 야외로 나가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주말마다 학원으로 내몰리는 우리 학생들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조기유학을 간 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한국학교의 교과과목 진도를 맞추기 위해 주말이면 또 다시 그곳에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 참여자는 회상했다. 적지 않은 문화충격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선생이나 어른에게도 존칭 없이 이름을 부른다는가, 어린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때리면 경찰에 부모를 신고한다는가, 또는 생일파티 때 음식을 서로 던지는 푸드 파이팅(food-fighting)에 음식을 중요시하는 동양 학생들에게는 충격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한 참여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 한국학교의 엄격한 수업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외국에서처럼 선생이나 어른들에게 편하게 말을 했다가는 예의도 모른다며 야단맞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학교에서 체험한 문화 등이 한국에 와서 오히려 부적응자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강조했다.

4.2. 귀국 후의 학교생활

귀국한 이유를 물었을 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곳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 돌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더 체류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완전히 잃어버려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즉,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 때 까지 외국에 있으면 결국 대학까지, 또는 대학졸업 후에도 외국에서 거주해야

할 것 같다는 학부모들 판단이었다. 호주에 유학을 다녀온 한 참여자는 결국 영주권까지 얻었지만 “아이가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늦으면 한국으로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 영주권까지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조기유학을 간 학생 중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국에서의 생활, 특히 한국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듯하여 귀국을 늦추다가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착 못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귀국 후,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은 많이 차이가 있는 듯 했다. 초등학생 때 귀국한 학생들은 한국학교로의 적응이 쉬워 보였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 가서 중학교까지 다니다 온 학생은 참여자 자녀들 중 모두가 실패했다. 중학생 때 돌아온 한 학생은 수업진도를 못 따라가서 결국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참여자의 자녀는 한국학교에 적응이 어려워 결국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에 조기유학을 보냈던 한 참여자는 “주변에 보면 조기유학 후 귀국한 학생들 중에 한국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수업진도를 못 따라가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 버린 경우도 있다”라고 말해주었다. 참여자중 한 자녀는 귀국 후 비용을 감수하고 외국인학교를 보낸다고 했다. “외국인학교를 마친 후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유학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듯 한국학교수업에서의 적응문제는 다름 아닌 수학과 국어였다. 특히 수학은 처음 귀국한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목이 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수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학과목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습 진도가 늦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국어는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어쓰기는 귀국 후 학생들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최소한 2-3년이 지나야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 참여자중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온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어 어휘에 미숙하다. 한창 한국어를 배울 나이에 유학을 간 것이 문제였다”라고 답했다. 사실, 모국어인 한국어는 초등학교 시절에 습득하도록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때 습득한 국어능력이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국어의 쓰기와 이해하기의 어려움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교과목 가운데 국어는 좋은 점수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생들 중 상당수는 영어를 더 배울 수 있기는 했으나 그만큼 국어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기 유학자들이 자신 있어 하는 영어 과목은 어떠한가. 영어 역시 대학입시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과목중 하나이다. 처음 귀국했을 때는 한국에 있는 학생들보다 월등하다는 것에 모든 참여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영어로의 노출도 보다 현저히 떨어지므로 영어능력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진다고 한다. 처음에는 영어성적이 한국에 있었던 학생들보다 잘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회화 관련 부분이라고 한다. 즉, 말하기와 듣기는 귀국한지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조기유학 덕을 보는 것 같다고 한 참여자가 자신 있게 이야기 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주로 문법 및 독해인데, 한국어로 영어문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오히려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보다 잘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영어라도 남들보다 월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조기유학을 다녀왔어도 자녀를 입시를 위한 영어 학원을 보내면서, 더불어 외국에서 익힌 회화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영어회화학원을 별도로 보내야 하니 사교육비는 귀국해서도 이중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회화는 조기유학자의 수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수업료가 비싼 외국인 선생에게 배워야 하고, 수업료가 부담스러워 아예 유학시절 배운 영어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어발음 및 듣기 성적을 위해 수학, 국어는 물론 나머지 모든 과목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조기유학에 대해 강한 후회를 내 비치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배운 영어를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지 연구자는 궁금했다. 놀랍게도 참여자의 자녀들 그 누구도 영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학교 친구들에게 영어를 사용해서 특별하게 보이면 따돌림당할까봐 그렇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서도 영어로 말하는 것을 불편해 한다고 한다. 조기유학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나이는 주위의 언어 환경에 너무 쉽게 적응을 하기 때문이다. 즉, 어린학생일수록 바뀐 언어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쉽게 배우지만, 또 언어 환경이 바뀌면 그만큼 쉽게 잊어버린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로 인한 성격변화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우리아이는 굉장히 외향적인 아이였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 서투르니 친구들이 흥분까봐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친구들을 사귄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선생님이 상담이 필요하다며 요청해와 가 보았더니 아이가 발표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을 정도로 내성적이다, 한국말에 너무 자신 없어 한다고 말해서 속상했다”라고 했다. 이처럼 학생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

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 자녀들은 국어를 다시 배우는 과정, 친구들이 자신을 다르게 본다는 인식, 달라진 문화에서 오는 혼란, 밥보다는 햄버거를 선호하는 달라진 식성 등이 귀국 후에 겪었던 어려움들이라고 했다.

4.3. 조기유학의 결과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또 기회가 온다면 자녀를 조기 유학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6명의 모든 학부모들은 조기유학은 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우선 연구자는 조기유학 목적이었던 긍정적인 성격으로의 전환 및 새로운 문화를 깨닫고 영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토론으로 유도했다. 그러나 조기유학으로 인해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어보였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오히려 국어에 대한 자신감 저하로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한 학생들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은, 학교라는 특정한 지역 안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기 위해 여행이나 독서보다 조기유학이 더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참여자들은 입을 모았다. 오히려 위에서 언급한대로 문화차이에서 오는 혼란은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했다. 영어실력 향상 또한 이미 언급한대로 많은 사교육비를 이중 또는 삼중으로 부담해야하면서도 같은 비용으로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넘어서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다.

“어린 시절의 많은 변화가 어떻게 아이에게 도움을 줄지 알 수 없으나, 언어를 바탕으로 배우는 학습과 관련해서는 혼란만 안겨주었다. 어린 시절의 모든 지식은 언어를 통해 습득하게 되는데 국어를 통해 습득하던 것을 갑자기 바꾸어 영어로 습득을 하게 되어 가던 길에 블록(block)을 놓아준 느낌이다”라고 한 참여자는 토로함으로써 학습과 관련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학습방법이 외국학교와 너무 다르다. 자유롭고 느슨한 외국학교의 학습방법에 익숙해진 조기유학자들은 한국학교의 스파르타식의 교육에 적응 못할 뿐 아니라, 악착같이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언어정체성, 즉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관련해 연구자가 질문했을 때, 3명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국어에 대한 중요성과 한국 문화 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3명의 자녀들은 반드시 한국어를 잘해야 하는지 질문한다고 한다. 빨리 졸업해서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유학한 나라에 비교해 우리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조기유학으로 외국학교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유학한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 참여자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다. “초등학교 시절이 가장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시기다. 그때가 모국에 대해 무조건적인 애국심을 가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만드는 것은 국가정체성에도 문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편을 잡은 경험이 있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시절 가지게 되는 애국심은 중·고등 학생시절에 가지는 애국심과 또 다른 것이라고 한다. 비판할 수 있는 인식이 형성되면 애국심도 현실적이 되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해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조기유학 때문에 놓쳐버리고 있다고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또 다른 한 부모의 의견도 의미 있었다. “보통 어릴 때 영어를 배우는 것은 발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 어릴 때 외국에서 영어를 배우면 발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 영어식(미국 및 영국 등) 발음을 그대로 흉내 내지 못한다고 해서 일상 대화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싱가포르, 필리핀 사람들의 영어발음이 이상하게 들려도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들은 영어원어민들(English native speakers)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양인이 서양인의 발음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이 더 어색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영어는 단지 외국어(foreign language)일뿐인데 반드시 원어민처럼 발음할 필요는 없다”며 조기유학이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우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조기유학의 효율성은 깊이 진단해보아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 가정의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단지 영어발음을 위해 조기유학을 결심하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가족의 해체, 어마어마한 유학비용, 학생들의 정신적 혼란과 귀국해서의 적응문제, 그리고 언어정체성 상실의 위협, 심한 경우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국제 미아가 되어야 하는 이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모두 입을 모았다. 조기유학의 또 다른 비효율성은 영어로 인해 보다 중요한 수학, 과학 등에 투자할 시간을 잃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수학, 과학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그런데 조기유학으로 영어에 치중하다보니 수학, 과학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소홀히 하고 모든 어린 학생들을 영어로 내모는 것은 비효

울적이라는 것에 참여자 모두 동의했다. 즉, 영어능력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 수학, 과학 등의 능력을 방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보다 영어를 효율적으로 배우려면 영어유학은 대학생 때가 가장 적기라고 했다. 대학생 때, 즉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고 세계관도 형성되었으며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조기유학을 보낼 학부모들에게 충고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들의 의견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고학년일수록 영어 학습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Cooper와 Fishman(Cooper, 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조기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보인 부모는 한명도 없었고, 그나마 적극적으로 조기유학을 부정하지 않은 부모는 그 아이가 현재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는 이유인 듯 했다. 그러나 다른 부모들이 강조했던 것은 그 학생의 경우, 한국에 있었어도 좋은 대학에 갔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는 그 학생은 원래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공부하는 것에 흥미를 가진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조기유학 경험자로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단지 영어를 조금 더 늘리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만약 주변에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공동된 의견이었고, 조기유학으로 감수해야 될 것은, 1. 언어정체성 상실 2. 막대한 비용 3. 가족 간의 유대관계 혼란 4. 다른 환경에서의 공백으로 인한 학습저하 5. 공백으로 인한 의욕 상실 등을 들었다.

5. 결론

이 논문의 목적은 조기유학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조기유학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구분별한 조기유학을 자체 유도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조기유학경험을 가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질적 조사를 실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조기유학 목적이었던 긍정적인 성격과 문화체험, 그리고 영어능력향상은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그 어떤 부분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조기유학은 학습능력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조기유학생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고비용 낮은 효과로 조기유학의 효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시절엔 모국어인 국어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

고 싶다. 굳이 Cummins와 Swain(1986)의 연구결과²⁾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고와 학습의 기초인 국어능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영어능력 시험처럼 국어능력 시험을 일반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나온 결론들은 각 초등학교에 열람시켜 조기유학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분별한 조기유학을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마스크도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조기유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유학 설명회에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여 학부모들의 정확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조기유학폐해를 막기 위한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여 국가적으로 손실을 막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한계점은 양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고 질적 조사의 결과들을 일반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층인터뷰가 이루어진 대상들은 조기유학의 경험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학부모들이고, 연구자 또한 외국에서 수많은 조기유학자들은 직접 만나왔고 또 오랫동안 관찰해왔다는 것이 이 논문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언급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그동안 이루어진 조기유학 관련 선행연구가 대부분 양적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어 질적 조사도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여겨진다. 조기유학과 관련된 심층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연구자의 바람이다.

참고문헌

- 귀국한 조기유학생 성적은 “퇴보”, (2005.5.5.) 한국교육개발원
 김영희, 최명선 & 이지향(2006).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학연구*, 13(1), 55-84.
 안병철 (1996)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 북가주 조기유학생을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14.
 인교준. 이귀원 (2006) 총영사들이 말하는 조기유학의 허실, 연합뉴스 (2006.3.30).

2) 캐나다에 있는 일본학생들의 영어습득능력은 모국어의 유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정희정 (2005).조기유학 사상 최대 하루 34명꼴 출국, 문화일보(2005, 3.29).
- 최진숙 (2001). The effect of the amount of positive contact with English on desire to learn English and English proficiency: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Korea. *성심외국어대학논문집*, 20, 125-141.
- 최진숙 (2004). The introduction of English as a second official language and Korean linguistic identity. *언어학*, 12(3),129-149.
- 최창봉 (2006). 조기유학준비 이렇게, 동아일보 (2006. 4. 18)
- 한국교육개발원 (2007). 교육정책정보, www.kedi.re.kr,
- Baker, C. (1993). *Foundation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Berdie, D.R., Anderson, J.F. & Niebuhr, M.A. (1986). *Questionnaires: Design and Use*, London: The Scarecrow Press Inc.
- Cooper, R. L. (1984) Language Planning, language spread and language change. In C. Kennedy (ed.),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education* (pp.124-150). London: G. Allen & Unwin.
- Cummins, J. & Swain, M. (1986). *Bilingualism in education*. New York: Longman
- De Vaus, D.A. (1995). *Surveys in Social Research*. North Sydney: Allen & Unwin.
- Fishman, J.A. (1972). *Language and Nationalism: Two Integrative Essays*. Rowley, Mass: Newbury House
- Gardner, R.C.(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Hawtin, M., Hughes, G. and Percy-Smith, J. (1994). *Community Profiling: Auditing Social Need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Lambert, W. E and Klineberg, O. (1967). *Children's views of Foreign People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최진숙

경남 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영산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학과

전화: (055)380-9236

98 최 진 속

이메일: jinachoi@ysu.ac.kr

Received: 30 March, 2007

Revised: 10 May, 2007

Re-revised: 30 May, 2007

Accepted: 10 June, 2007